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26개국 중 최하위권!

한국의 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종교인 비율은 37%에 불과하지만(넘버즈 224호), 세계인 10명 중 9명(89%*)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종교는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이 인식하는 종교성은 어떠한가? 종교가 없는 인간은 있지만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성이란 인간만이 가진 영적인 속성이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IPSOS에서 세계 주요 26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와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적 영성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종교성이 세계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종교의 중요성 인식 등 한국의 종교적인 성향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명상이나 운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성향 등 종교성은 낮지 않았다.

*World Christianity 2024: Fragmentation and Unit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January 2024, 각 국가별 민속종교 포함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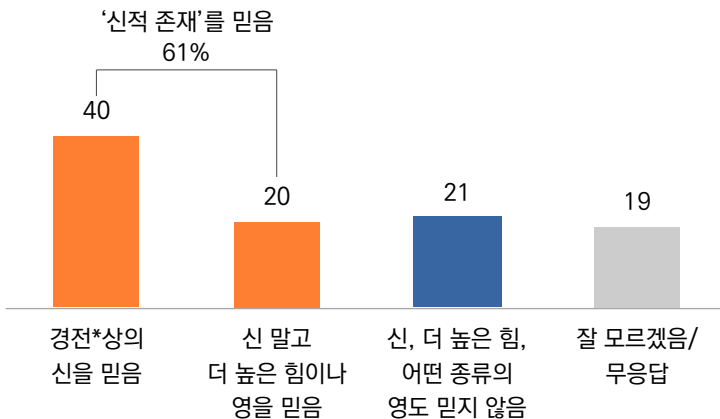
01

[세계인의 종교성]

세계 주요 26개국 성인 61%, '신적 존재' 믿어!

- 세계 26개국 성인 대상으로 '신' 또는 그보다 '더 높은 힘이나 영'에 대한 믿음을 물어본 결과, '경전*상의 신을 믿음'이 40%로 가장 많았고, '신 말고 더 높은 힘이나 영을 믿음'이 20%를 차지했다.
- 경전 상의 '신'과 '그보다 더 높은 힘이나 영', 즉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비율은 모두 61%로 조사국가 성인 10명 중 6명에 해당했다.

[그림] 신 또는 더 높은 힘에 대한 믿음 (26개국 성인, %)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조사 대상국 :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웨덴, 태국, 터키,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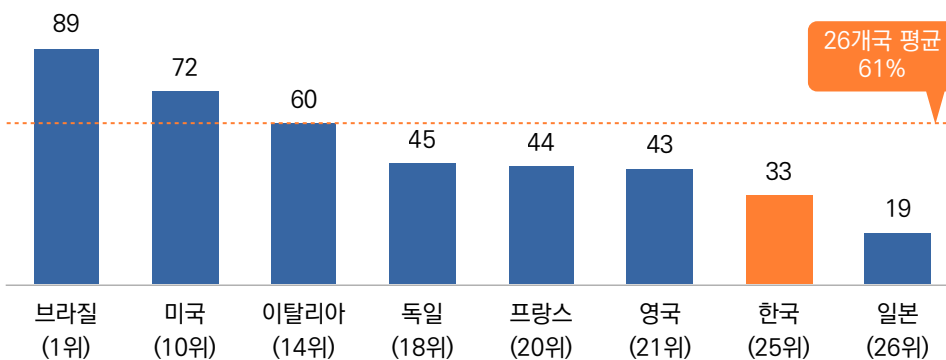
*성경, 쿠란, 토라 등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26개국 중 최하위권!

- 이러한 '신적 존재'를 믿는 비율은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브라질'이 8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2%,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43~4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 '한국'은 3명 중 1명꼴인 33%로 26개국 평균(61%)보다 크게 낮았으며, '일본(19%)'과 함께 조사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요 국가별 '신적 존재*' 믿음 (26개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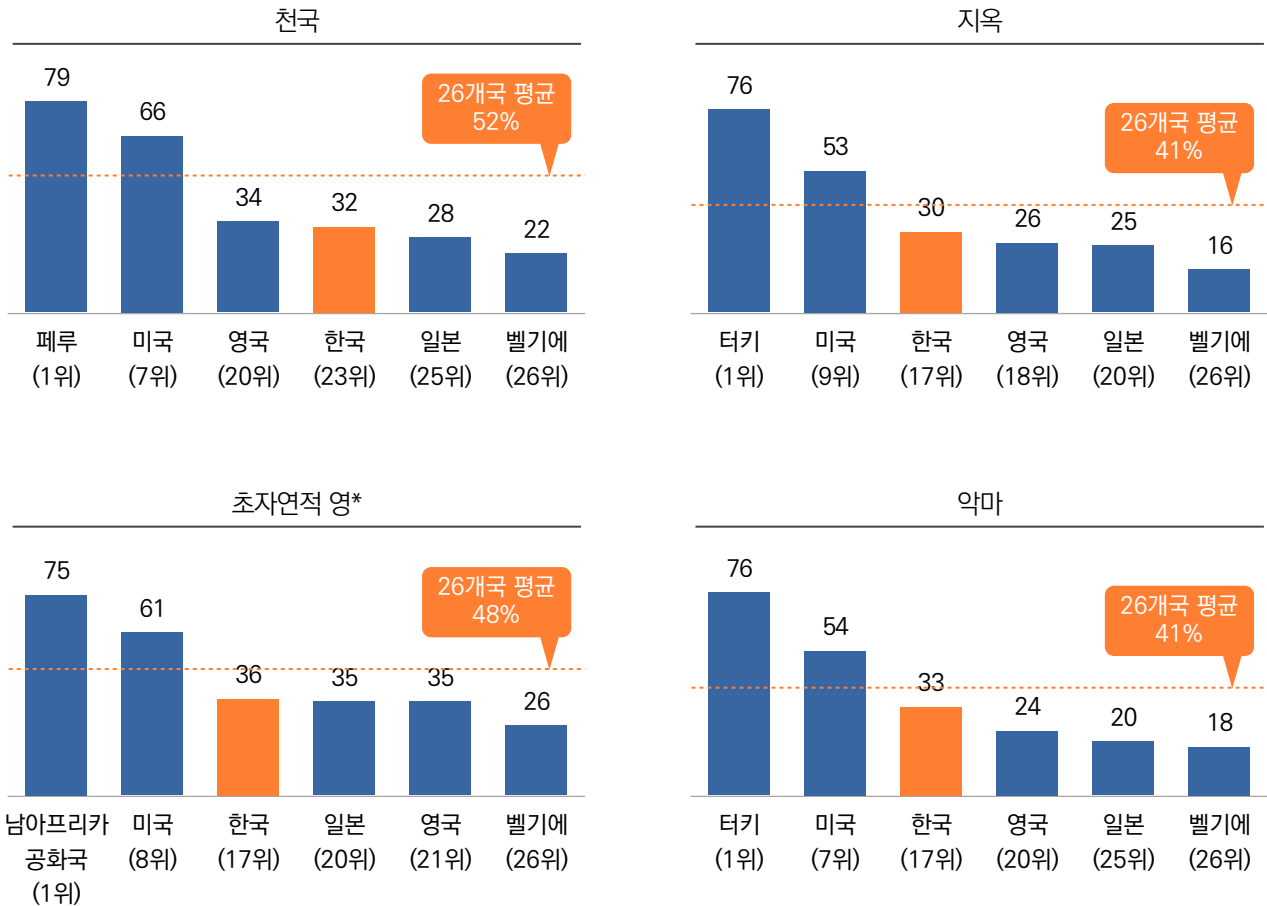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경전 상의 신을 믿음 + 신 말고 더 높은 힘이나 영을 믿음' 비율

‘천국’과 ‘지옥’ 믿는 비율,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 이번에는 천국, 지옥, 영, 악마 등 종교적 개념을 제시한 후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한국인이 각 항목에 대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0%대로 26개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 ‘한국’이 26개국 평균치와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은 ‘천국’으로 20%p 차이를 보였다.

[그림] 종교적 개념 실존 인식 (26개국 성인, %)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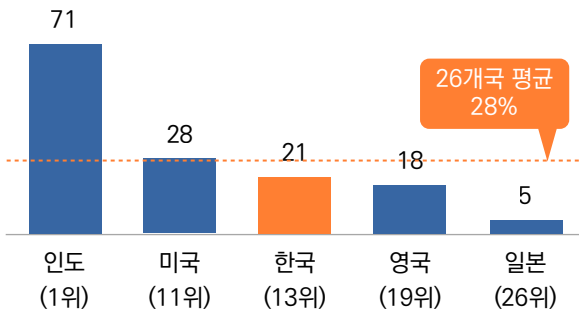
*천사, 요정, 마귀, 유령 등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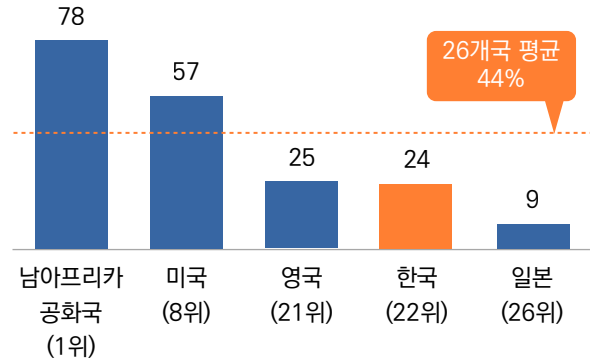
[세계인의 신앙 활동] 한국인의 신앙 활동, 26개국 중 중하위권!

- 세계인의 예배, 기도 등 신앙 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인이 교회, 절 등 예배 장소에 가는 비율(월 1회 이상)은 21%로 조사국 중 중간인 13위를 차지했으며, 예배 장소 밖에서 기도하는 비율(월 1회 이상)은 24%로 22위에 랭크됐다. 한국인의 신앙 활동 역시 26개국 중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그림] 예배 장소* 가는 비율
(26개국 성인,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준, %)



[그림] 예배 장소 밖에서 기도하는 비율
(26개국 성인,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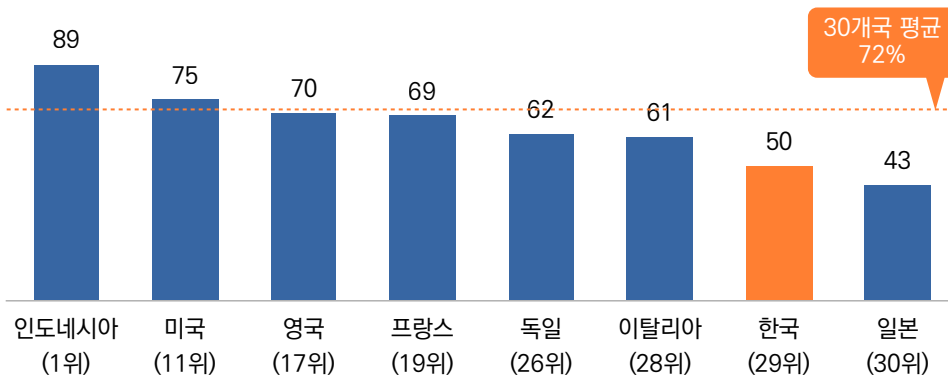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교회, 절, 모스크 등

세계인의 신앙/영적 생활 만족도 72%, 한국 50%!

-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할까? 입소스가 발표한 다른 보고서인 '글로벌 행복 2024' 보고서의 '종교적/영적 만족도' 부분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30개국의 평균은 72%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50% 수준에 머물러 조사 대상국 중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림]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생활 만족도 (30개국 성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 Ipsos, 'Happiness Index 2024', 2024.03. (30개국 성인 24,269명, 온라인 조사, 2023.12.22.~2024.01.05.)
조사 대상국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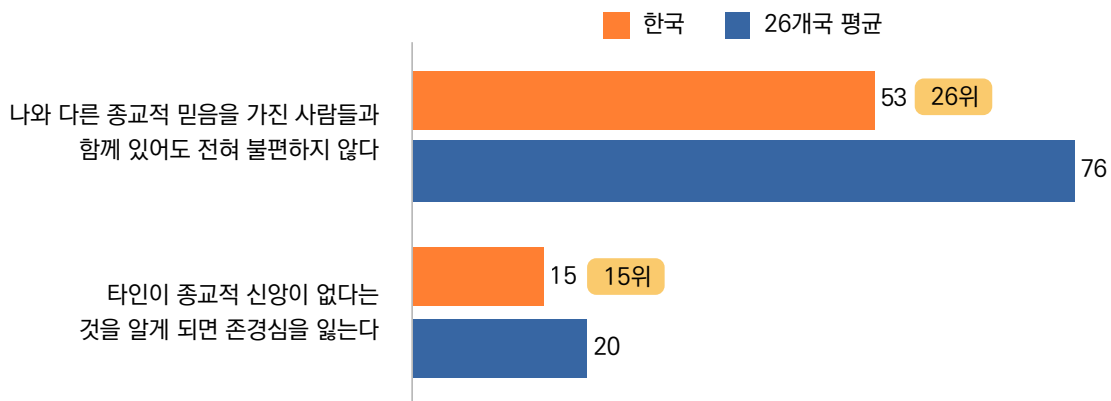
03

[세계인의 종교에 관한 인식]

‘다른종교가진사람불편하다’ 인식, 한국인이 조사국중가장높아

- 이번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보았다. ‘나와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한국인 53%가 동의했는데 이는 조사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인은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인 것이다.
- ‘타인이 종교적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존경심을 잃는다’에 대해서는 15%가 동의해 평균(20%)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종교인에 대한 인식 (26개국 성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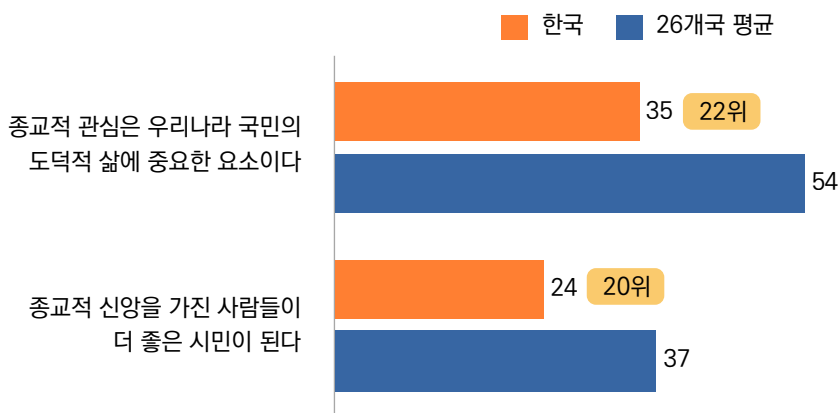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4점 척도

한국인, 종교와 삶의 연관성 낮게 인식해!

- 종교를 믿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된다는 의견과 같이 종교와 삶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의 ‘종교적 관심은 우리나라 국민의 도덕적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35%)’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시민이 된다(24%)’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26개국 중 20위, 22위를 기록해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와 일상의 삶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종교의 사회적 인식 (26개국 성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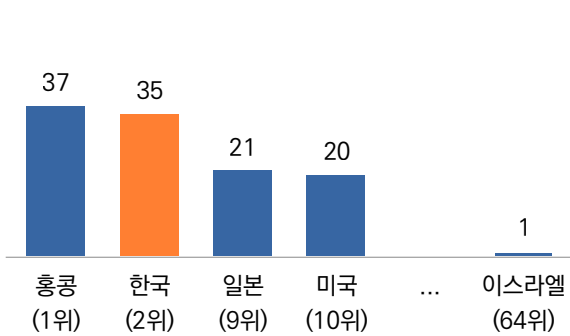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4점 척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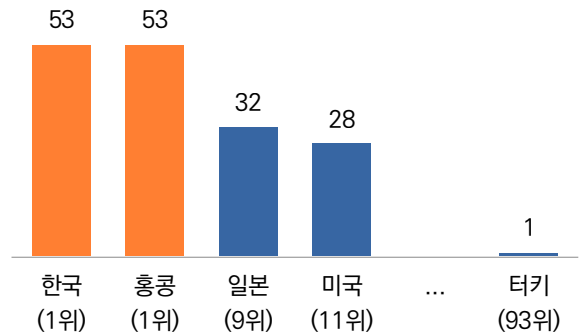
세계인의 종교 변화와 종교적 의식 한국인의 종교 변화, 세계 최상위 수준!

-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종교와 영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통적으로 불교와 무속 신앙이 남아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5개 국가의 종교성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는 같은 기관이 조사한 세계 102개국 종교의식 조사 결과와 동아시아 5개국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수록하였다.
- 먼저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은 한국이 35%로 102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종교전환율, 즉 전 국민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를 바꾸거나, 무종교에서 종교를 갖거나, 종교를 버리거나 해서 종교에 변화를 준 사람의 경우 한국이 53%로 10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한국은 종교 변동성이 큰 나라이다.
- 종교 이탈률과 전환율 모두 ‘홍콩’,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다른 지역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림] 종교 이탈률 (102개 국가 성인,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무종교인, %)



[그림] 종교 전환율 (102국가 성인,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에 변화를 준 사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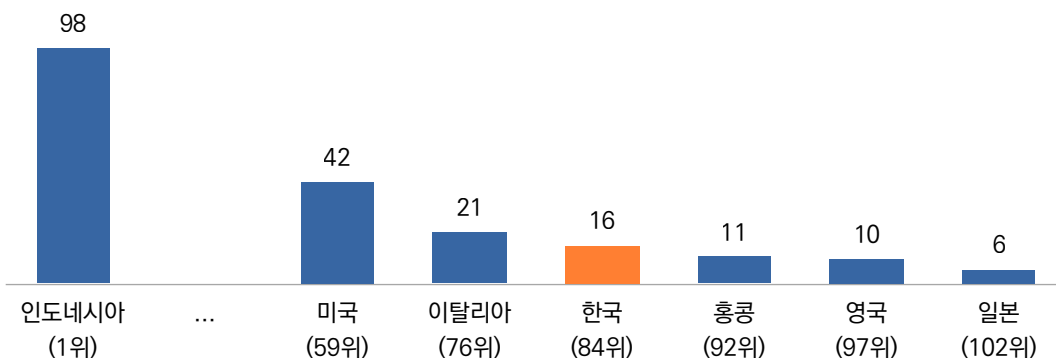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동아시아 5개국 외 국가는 2008~2023년 조사한 데이터임)

한국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중요성, 세계 하위권!

-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나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교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니 '한국'은 16%로 102개국 중 84위에 랭크됐다. '홍콩(11%, 92위)'과 '일본(6%, 102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종교 중요성 인식은 다른 지역권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림]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 (102개 국가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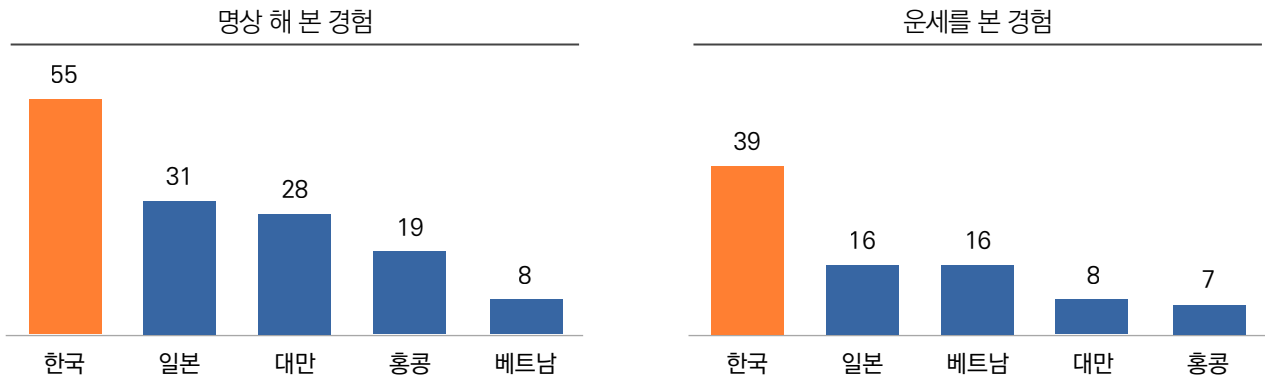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동아시아 5개국 외 국가는 2008~2023년 조사한 데이터임)

*4점 척도

무종교인의 종교적 행위와 무속 경험, 한국이 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높아!

- 동아시아 5개국의 무종교인에게 최근 1년간 명상 같은 종교적 행위나, 운세 같은 무속 행위를 해본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한국인의 명상 해 본 경험이 55%로 가장 높았고, 운세를 본 경험도 39%로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림] 무종교인의 종교적 행위 경험 (동아시아 5개국 무종교인, 최근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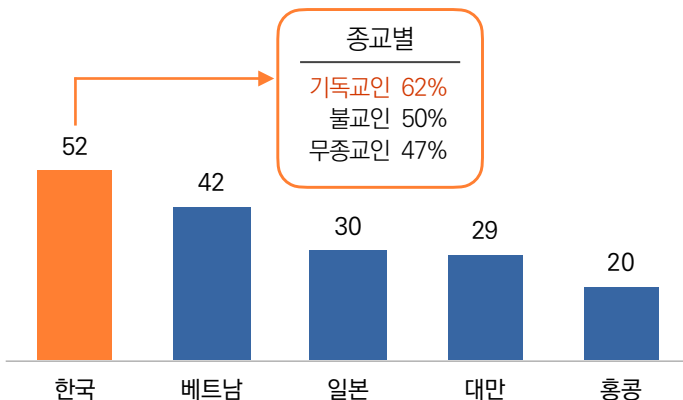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한국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아!

- 한국인은 또한 조사 대상국 중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 52%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본(30%), '홍콩(2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종교와는 거리가 있지만 종교성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기독교인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한 달에 1번 이상 생각하는 빈도가 62%로 무종교인이나 불교보다 더 높았다.

[그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동아시아 5개국 성인, 한 달에 1번 이상 기준,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이번호 요약

1. 한국인의 종교적 믿음,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33%, 26개국 중 25위), '종교적 만족도'(50%, 30개국 중 29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102개 국가 중 8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 하지만 한국인의 종교성 낮지 않아!

- 종교 비율이 높지 않은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비교에서, 한국은 '명상', '운세' 등 종교적 행위를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칼럼] 무종교인의 증가와 제도 종교의 쇠퇴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아이굿뉴스)
- ▶ [기사] 무종교는 '신종교'일까? 가속화되는 무종교의 확장과 관련하여 (베리타스)
- ▶ [넘버즈 237호]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관련 성경 구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

목회 적용점

지난 넘버즈 237호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편에서 무종교인도 종교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세계조사에서도 확인된 점은 한국인이 '종교적 믿음'은 적은 반면, '종교성'은 역시 낮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한 주제로 개신교인의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음'을 조명했다면, 이제는 무종교인이 더 많아진 한국인의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명상', '운세', '템플스테이' 등 종교적 행위가 대중문화 영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교회는 무종교인도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전도 행사를 하지 않은 교회가 절반(50%)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교회의 정기적인 전도 프로그램 실행과 관계 전도 매뉴얼의 실천은 전도의 결과를 떠나 성도가 주변 지인과 이웃의 영적 갈급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일이다.

*넘버즈플 87차